

「황생전(黃生傳)」에 나타난 김기의 북벌론에 관한 연구

權 都 京*

1. 들어가는 말
2. 「황생전」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소개
3. 「황생전」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상과 의의
4. 맺 음 말

1. 들어가는 말

「황생전(黃生傳)은 18세기 재야 학자인 김기(金琦: 1722-1794)가 창작한 한문단편소설로, 그의 문집인 『기현유고(寄軒遺稿)』¹⁾에 실려 있다. 「황생전」은 황생이라는 인물의 일대기 속에서 북벌론을 문답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으로, 인물전의 양식적 범주 속에서 문답체 구조의 서사성을 구

현함으로써 소설적 서사성을 일정 부분 획득한 작품이다.²⁾ 황생전은 『기현유고(寄軒遺稿)』, 권지4에 일곱 편의 제문(祭文)과 함께 편집되어 있는데, 매면 12행, 매행 24자, 총 3,730자로 전(傳)이란 표제를 달고 있는 전형적인 작품과 비교하자면 다소 긴 분량임을 알 수 있다. 황생전은 김기의 여타 다른 작품들과 함께 그의 후손인 김사변(金思變) 선생 댁에 전해져 오던 것으로 유일본만 존재한다. 김사변 선생의 요청으로 1959년에 송준호 교수의 부친인 송재식(宋在植) 선생이 김기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묶어서 『기현유고』로 출간했다.³⁾

「황생전」에 관한 기존 연구로는 작가의식, 창작 배경, 구조 및 양식적 특징을 다룬 논의가 존재한다. 「황생전」의 작가의식과 관련해서는 사회비판 및 개혁의식이 지적⁴⁾되었으며, 창작 배경의 측면에서는 북벌설화와의 관련성이 간략히 언급⁵⁾되었고, 구조 및 양식적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 서사갈등의 양상과 문답식 구조의 특징⁶⁾이 밝혀졌다. 이상의 기존 논의에 의해 「황생전」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환기될 수 있었으며, 특히 구조 및 양식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황생전」의 서사가 짜여지는 구성 원리와 갈등 구조의 양상,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양상과 인물형상화의 특징, 인물전의 양식적 특징 속에서 허구적인 소설성을 구현하는 방식 등 작품의 내재적 연구의 본격적인 첫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황생전에 구현되어 있는 북벌론의 양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시대적인 의의를 규명해 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⁷⁾

2) 「황생전」의 이러한 특징에 관해서는 권도경, 「황생전」의 서사 갈등의 양상과 양식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24, 2006을 참조하기 바람.

3) 『기현유고』는 송준호 선생이 소장하고 있으며, 동일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 보관되어 있다. 본고는 송준호 선생 소장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4) 권도경, 「김기의 문학세계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13, 2002.

5) 김수현, 「기현 김기 연구」, 『고전문학연구』 24, 2003.

6) 권도경, 「황생전의 서사 갈등의 양상과 양식적 특징」, 『동양고전연구』 24, 2006.

7) 「황생전」에 나타난 18세기 사회상과 시대상, 작가 김기의 사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황생전」에 나타난 18세기 재야실학자 김기의 북벌사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연구원

1) 『기현유고』는 4권 1책, 127장이며, 한시·산문·제문·전 등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양란의 종결 후 구체화된 북벌론은 17세기에 그 정점을 맞았다가, 18세기 이후로는 당대의 국제적 역학관계와 국내의 정치질서를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나갔다. 내분을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각종 문화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었던 청나라와의 관계는 한 세기 전의 주류 국가이념인 북벌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소중화주의를 외치는 화이론적 세계관이 주류 관념으로서 여전히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부(國富)의 증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과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북학파의 주장이 이념지도의 새로운 한 국면을 형성한 시기이기도 했다. 기존의 공식화된 이념지도가 해체되고 시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지식 이론은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회의하는 동시에 변주하는 과정에서 모색되어 나아갔다. 북벌론은 사회 체계를 재편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한 이데올로기로 서, 비록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을망정 여전히 18세기에도 그 영향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 위상만큼이나 새로운 지식 이론 구축을 위한 기존 이념의 발전적 해체의 주된 대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18세기 지식 이론의 체계 속에서 북벌론은 기존의 국가 체계를 비판하는 동시에 현재 및 미래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황생전」에 나타난 북벌론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도 이러한 차원에 놓여져 있다.

본고는 「황생전」에 구현되어 있는 북벌론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규명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황생전」이 위치한 18세기 북벌론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창작배경에 관한 연구이다. 18세기 북벌론의 전개와 변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고탑회귀설과 관련하여 황생전의 북벌론이 형성된 배경

본 고의 일차적인 의의도 바로 이와 같은 「황생전」에 대한 18세기 사회상과 작가 김기의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기존 연구가 부재하다는 지점에 놓여있다.

의 한 국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는 황생전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상과 의의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요동 점령론과 축차적·토착적인 점령론, 청나라 지형에 맞는 진법 운용과 첨단무기 개발, 전통적인 화이론과 진보적인 부국강병론의 발전적 결합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황생전」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 소개

(1) 작자 김기의 사상적인 배경과 「황생전」

김기(金琦)는 명문인 안동(安東) 김문(金門)에서 몰락한 계파 출신으로써 근기지방에서 세거하다가 낙향한 바로 이처럼 재지사족으로서 당대의 개혁적 사상과 문학세계를 보여준 독특한 소설작가이다. 김기의 사상적 경향은 경제지학, 치도론, 상수학적 지식 등에 집중된 진보적 성향을 보여준다. 김기가 이러한 사상적 경향을 보이게 된 배경은 개인적 관심에 의한 독자적 연구와 성리학의 낙론을 계승한 학통, 경화벌족 출신의 집권층과 중인층으로 대별되는 교유관계의 세 가지 방향에서 설명된다. 김기는 안동 김문의 계파 가운데서도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사림의 자세를 고수하는 것을 내력으로 하는 사렴공파(使廉公派) 출신이다.⁸⁾ 김기 자신도 소싯적부터 뛰어난 인재로 칭송받았으나, 1739년(영조 15) 18살의 나이로 참여한 과장에서 과거제도의 비리를 경험한 이후로 평생을 과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

8) 김기의 10대조가 되는 김사렴(金使廉)은 고려가 망한 후 절의를 지켜 태조가 불러도 거절하고 평생을 벼슬하지 않았으며, 자손들 역시 관직을 하지 말 것을 유훈으로 남겼다. 실제로 김기의 직계가계에서는 사후에 추증된 외에는 벼슬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이때의 경험이 김기를 재야사족으로 남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 바, 김기는 집권층의 출사권유를 거절하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⁹⁾ 그러나 김기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1768년 이후 개인적으로 치도의 근간이 되는 경제학과 상수학 등을 연구했다. 이후 김기는 낙론의 거유인 李緯(1680-1746)의 제자 擘泉 宋明欽(1710-1758)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사를 받으면서 경제지학과 상수학에 학문적인 접근을 해나갔다.¹⁰⁾ 이러한 상수학적 관심은 조선 성리학자들의 상수학 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등을 평가한 여신돈항(與愼敦恒),¹¹⁾ 천체와 우주론에 대한 지식을 서술한 「물리문답(物理問答)」¹²⁾ 등에서 확인된다.¹³⁾

김기는 과거응시를 거부하고 낙향한지 16년만인 1755년(영조31)에 재상 경하여 당대 경화벌족들과 친분을 쌓았다. 연안김문(延安金門) 출신으로 영의정을 역임한 죽하(竹下) 김익(金燧: 1723-1790), 연안이문(延安李門) 출신으로 판서를 역임한 이정보(李鼎輔: 1693-1766), 이익보(李益輔: 1710-1758) 형제와 이조원(李肇源: 1758-1832) 등이 이 시기에 친교를 맺은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서 김기는 특히 김익과 상당히 친교가 깊었는데, 두 사람의 교유관계를 그가 김익에게 보낸 죽하김상공익(上竹下金相國燧)¹⁴⁾이라는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서른 네 살이던 김기는 그의 친구

9) “幼學壯行，固是士君子之事，則吾亦可仕，然仕者，欲以行道也，苟道之不行，而徒貪爵祿，隨衆進退而已，則是君子事君之道乎”(『行狀』, 『寄軒遺稿』, 卷之五).

10) 송명흠은 土禍를 피하여 낙향하는 부친을 따라 충청도 沃川·宋村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1764년 贊善으로 經筵官이 되기까지 충청도에 玉溜閣에 머물면서 학문을 지속했는데, 이때 김기가 송명흠에게 사사받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1) 『寄軒遺稿』, 卷之二.

12) 『기현유고(寄軒遺稿)』, 권지(卷之)三.

13) 김기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과 신선술, 자연학 등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성향이 「황생전」, 「정생전」에서 초월계, 잡학, 신선추구, 술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上竹下金相國燧」, 『寄軒遺稿』, 卷之二, 書.

이자 김익의 조카사위인 이생(李生)의 소개로 김익을 만났다. 김익은 김기를 마치 오래 사귄 사이처럼 대했다고 하며, 얼마후 이생이 요절한 후에도 친분을 이어가기를 당부했다. 그러나 경향의 거리와 낙척불우한 처지 때문에 떠돌아다니느라 친교는 14년간 끊어진다. 그후, 김기는 1768년(영조44) 봄에 다시 상경하여, 홍문관 관직을 역임하고 있던 김익을 다시 찾아보았다. 김익은 지위가 높아져 빈객이 문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김기를 붙잡아두고 은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이후로는 김기는 다시는 상경하지 않았으나, 23여년이 흐른 이후에도 편지를 보낼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는 각별했다.¹⁵⁾ 한편, 1759년(영조35) 이후 송능상이 죽고 난 후에 김기는 충청도를 떠나 전라도 설천(雪天)으로 이거했다. 이 시기에 김기는 설계(雪溪) 박치원(朴致遠)·김근추(金謹樞)·신돈항(愼敦恒)·정동박(鄭東泊)·신천능(愼千能) 등의 중하층 제자들을 길러냈다.¹⁶⁾ 김기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스승 송능상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가 송능상에게 문리를 묻기 위해 보낸 편지에서 박치원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박치원만은 송능상이 죽기 전부터 학문적 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¹⁷⁾ 이 무주 은거기의 평민제자 양성경험은 「정생전」에서 중인여성·여향인을 등장

15) 김기는 「上竹下金相國燧」 끝부분에 자신의 나이가 일흔이 다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768년 상봉 이후 23여년이 지난, 1791년 무렵에 쓴 편지임을 알 수 있다.

16) 이들 제자들과의 관계는 「答愼千能」·「與愼敦恒」·「門生金謹樞祭文」·「門生鄭東泊祭文」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행장」에서는 이들을 평민학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이 몰락한 재지사족 출신임을 들어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지로 중서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돈항의 인척 중에 박치원(1680-1764)이라는 同號·同名의 인물이 확인된다. 雪溪라는 호를 가진 이 인물은 密陽 朴氏로 1709년(肅宗34)에 과거에 급제하여 知中樞府事까지 지냈다. 신돈항이 편한 그의 문집 『雪溪隨錄』(신돈항 편, 규장각, 27권)에는 신돈항이 그의 문생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설계 박치원은 김기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기 때문에 「행장」 기록처럼 김기의 제자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김기와 학문적인 교류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나 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

17) “前日言及於朴致遠，則致遠以生疑於章句爲大，不可其言，頗近於謹嚴之道，自謝妄發矣”(『上雲坪宋先生』, 『寄軒遺稿』, 卷之二, 書).

시키고 그들의 욕망·의식세계를 구현하게 되는 동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는 학문적으로 연암·담헌과 더불어 낙론을 계승한 동시대의 인물이다. 이단상(李端相)에서 김창협(金昌協)으로 계승된 낙론의 학맥은 이재와 어유봉(魚有鳳)으로 나누어 계승되는데, 김기는 이재로부터 송명흠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었고, 담헌은 이재에서 김원행(金元行)으로 계승되는 학맥을 이었으며, 연암은 어유봉으로부터 이보천(李輔天)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받고 있다. 또한, 담헌의 스승 김원행과 김기의 스승 송명흠은 김기와 친분이 있던 이조판서 이정보에 의해 1750년 관직에 나란히 등용된 일례도 있는 것으로 보아 김기와 담헌, 연암 등과는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면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⁸⁾ 김기가 사상적, 문학적으로 담헌과 연암을 중심으로 한 북학파의 개혁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학통과 학문적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의 교유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화거족 출신의 집권층과의 두터운 교유와 함께 중하층 인물들을 학자로 길러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전자는 김기로 하여금 서울의 최신 문화를 수시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열어둘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한 중하층 출신의 인재들을 접함으로써 계층과 사회 문제에 대한 개방적 시각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는 사상적으로 진보적인 현실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집필 활동을 통해 급진적 개혁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김기는 벌벌의 권력독점과 사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부국강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치도관을 펴고 있다. 김기는 소위 현인(賢人)들에 의해 시행되는 전통적인 치도론으로는 폐단을 근절할 수 없다고 보고 급진적인 법률시행을 주장한다.¹⁹⁾ 송명치란론(宋明治亂論)에서 김기는 북송(北宋) '희풍

18) 『英祖實錄』, 英祖26, 庚午.

소성지폐(熙豐紹聖之弊)'의 근원을 제공하였다 하여 비판받아온 신법(新法)을 재평가함으로써 치도에 있어서 '이재지법(理財之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가 말하는 치도란 단순히 수동적인 '수성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부국강병책의 시행이다. 즉, 치병(治兵), 강무(講武), 축재(蓄財), 실변(實邊) 등의 시무에 걸친 강력한 행정실무법의 시행인 것이다.²⁰⁾ 김기가 이상으로 삼는 치자상 역시 유가적 현인이나 지사가 아니라 당나라 때에 '이재지재(理財之才)'를 중흥무진으로 발휘한 안연(晏然), '경중구부지법(輕重九府之法)'을 시행한 관중(管仲), '낙관시변지책(樂觀時變之策)'으로 유명한 허연(許然)과 같은 경제가이다. 김기는 18세기 조선을 신법의 실패로 인해 대표적인 난세로 평가되는 송나라 신종(神宗) 때보다 폐단이 심각하며, 국세가 어느 때보다 위급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²¹⁾ 김기가 보는 당금의 폐단은 벌벌의 권력전병과 사치풍속에 기인한다. 1784년(정조 8) 무렵 김기가 당시 재상의 반열에 있던 김익에게 보낸 편지 「상죽하김상국익을 보면 이러한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영·정 연간에 왕실과 벌벌의 사치한 풍속은 중앙정계나 재야 할 것 없이 국가의 중요한 폐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²²⁾ 김기는 「상죽하김상국익에서 재야산림의 입장에서

19) “世俗所謂，賢者之無補於世之說，適中其見”(『上竹下金相國燧』, 『寄軒遺稿』, 卷之二).

20) “其急先之務，孰有切於治兵講武蓄財實邊”(『宋明治亂論』, 『寄軒遺稿』, 卷之三)

21) “自今奢侈贓汙之害，有甚於熙豐青苗之弊，而國勢危急，莫此時若也”(『上竹下金相國燧』, 『寄軒遺稿』, 卷之二).

22) 영·정 연간에 사치의 폐단은 봉당, 분경, 조세, 재정 등과 더불어 시급한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비판적 지식인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궁중, 사대부, 서리를 중심으로 한 사치한 풍속이 여항에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을 경계하는 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정나라 사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능라, 담비가죽 등의 소위 唐物 유입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채·진주·자개 등 사대부가 여성들의 사치 또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영조는 스스로 무명으로 만든 옷을 입음으로서 모범을 보였으며(『영조실록』, 영조 10년 2월 5일, 辛亥), 능라·보석 등의 수입품 반입과 가채금지, 혼수 간소화를 명하는 교시(『영조실록』, 영조 22년 11월 6일, 丁酉; 영조 25년 9월 21일, 병인; 영조 32년 1월 16일, 甲申; 영조 45년 4월 5일, 정묘)를 여러 차례 내렸다. 그러나 이미 사치풍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서, 신하들이 어전에서 비단옷 위에 무명 겹옷을 겹쳐 입음으로서 임금을 기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영조실록』, 영조 10년 2월 5일,

이러한 폐단의 구체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다.²³⁾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폐단이 국가와 백성을 위한 '정도(正道)'를 위협하는 악습의 연결고리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권문세족의 사치한 풍속이 지방관의 탐학과 주세과징을 낳고, 이로 인해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악습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기는 재정, 군사, 관제 등 행정의 개혁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김기가 재야산림이면서도 치도를 실질적인 부국강병책과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김기는 고답적인 유가적 재야 지식인으로서 현실정치에 담쌓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앙정계의 치자에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황생전」은 김기가 자신의 사회개혁사상을 북벌론을 통해 집대성해 낸 작품이다. 여기서 김기는 황생(黃生)이라는 이인과 혹자 간의 문답을 통해 북벌의 성공을 위해 조선이 수행해야 할 개혁책이 무엇인가를 논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당국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황생전」의 대강의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효종조(孝宗條) 때에 전라도 신창(新昌)이라는 곳에 황생(黃生)이라는

辛亥).

23) “近聞士大夫家，若婚嫁，則新婦笄具，郎家當之，而鬻長必滿二尺六寸許，然後用之，此乃至貴之物，難得之貨也，一笄之入至於千金，千金乃中人數家之產也，一女子頭上，戴數家之產，古人見帶牛佩犢以爲非，況見戴人之家，則將復謂何(中略) 今以如此薄俸，備如此用度，則其勢不得，不受賂於列邑，而邑宰之黜陟，專出於賄賂之多少，爲邑宰者，其勢不得不聚斂於民而後，乃辨其賂物也，推此而觀，則奢侈之弊，常患財乏，財乏之弊，不顧廉防，不廉之弊，至於受賂，受賂之弊，至於聚斂，聚斂之弊，至於使斯民，不得安業，民不安業，國受其禍，此必然之勢也”，「上竹下金相國題」，『寄軒遺稿』，卷之二。

24) 김기의 생애와 학술활동 및 학승·교유관계, 사상적 경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권도경, 「김기의 문학세계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12, 2002. 8. 30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의 논문은 김기의 사상·학문적 배경과 생애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연구이다. 필자의 논문에서 이 부분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김기의 생애 및 사상·학문적 배경에 대한 소개를 대신함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둔다.

선비가 있었다. 황생은 태어난 지 열달이 되지 않아서 혼자 글을 깨우치고 학문을 연마할 수 있었으며, 콩으로 병사를 만들어 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이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황생의 학문은 유학에서부터 과학기술과 군사, 지리 등 실용적인 영역에까지 두루 걸쳐있는 것이었다. 황생은 비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고 초야에 묻혀 있었다. 그런데 혹자(或者)가 찾아와 북벌성공책과 사회개혁에 대한 가르침을 구하자 그에 대한 자신의 의론(議論)을 펼친다는 줄거리로 되어있다.

(2) 18세기 북벌론의 전개 양상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란 두 차례의 호란을 경험한 조선 사회는 북벌론을 중심으로 사회체제와 정치·이념 질서를 통합해 나아갔다. 대청복수론(對淸復讐論)과 예치론(禮治論)은 흩어진 통치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해 17세기 집권층이 내세운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였다.²⁵⁾ 그러나 중국 내부의 정세 변동을 배경으로 18세기에 들어오면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층 내부에서도 북벌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조선 사람으로서 명나라에 절의를 지킨 인물들의 사적을 기록한 『명배신고(明陪臣考)』의 저자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은 북벌계획은 명이 남천(南遷)한 후 세 황제가 생존했을 당시(1645-1662년)에만 가능했던 일이라고 규정했다.²⁶⁾ 북벌론의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이념적 생명력을 17세기의 특수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이다. 대신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俊吉) 같은 인물들이 북벌을 추진한 일은 존주대의(尊周大義)을 밝힌 것²⁷⁾이라고 하여, 북벌론에서 존주론으로의 국

25) 대청복수론과 예치론을 중심으로 한 17세기 국가 이데올로기의 양상에 관해서는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을 참조하기 바람.

26) 黃景源, 『明陪臣考』, 권3, 규장각.

가 이데올로기의 전면적인 전환²⁸⁾을 명시하고 있다. 주(周)나라를 정통으로 하여 명나라로 이어지는 『춘추(春秋)』 정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명나라에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은 18세기 초반 명나라 황실에 올리는 제의를 조선의 국가의례화 한 대보단(大報壇) 제사의 창설과 18세기 후반 존주론의 이념을 총정리한 『존주회편(尊周彙編)』의 편찬 등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구축 및 강화 작업은 북벌론의 기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사회질서와 사상·이념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자, 내수외양(內修外攘)과 자강지도(自強之道)를 부르짖음으로써 노론 집권층의 정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것²⁹⁾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공식 이데올로기가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18세기 조선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지식인 사회의 이론 또한 다기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사상·학문 및 지식체계의 변화 속에서 조선의 국가적 미래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의 대표적인 화두로 대두된 것도 이러한 다층적인 흐름 중의 하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나라의 선진 문물과 중국에 수입되어 있던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 국부(國富)를 축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국가의 행정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북학 운동의 대두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존 질서

27) 黃景源, 『明陪臣考』, 권3, 규장각.

28) 정옥자는 전개서에서 북벌론에서 대명의리론·존주론으로의 전환을 단선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순환적인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정옥자는 18세기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을 북벌론과 같은 차원의 구체적인 개념으로만 적용하고 있으나, 본고는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에는 일반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사건으로서의 개념이 이원적으로 존재하며,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이 구체적인 사건으로서의 북벌론 혹은 대명의리론·존주론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으로 회기하기도 하는 유동적인 체계로 규정한다.

29) 정옥자, 전개서, 98쪽.

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바탕으로 사회의 전방위적인 패러다임의 교체를 추구하는 진보의 물결과 전통적인 명분론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의 이념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과거 회기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8세기는 양극화 된 두 층위의 이념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상계가 자기 갱신과 극복을 이루어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극화 된 이념지도를 배경으로 17세기 이래로 유명무실해 진 북벌론은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이라는 명분론으로 옷을 갈아입고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볼 수 있다. 즉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은 표면적인 얼굴만 바뀌었을 뿐 그 이면의 알맹이는 북벌론의 핵심 근간과 동체에 있다. 시대의 여건과 이슈에 따라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은 북벌론으로 구체화 되었다가, 다시 북벌론이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으로 일반화 되는 구도 속에서, 새롭게 나타난 18세기 논의가 바로 영고탑회귀설이다. 영고탑회귀설은 오랑캐인 청나라의 운세가 백년을 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발상지인 영고탑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17세기 후반인 숙종 조부터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되어 18세기 중엽까지도 지속되었다. 1673년 오삼계(吳三桂)의 난, 1726년 청 황실 내부의 골육상쟁, 1712년 목극동 사건, 1730년의 자연재해 등은 영고탑회귀설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대륙 내부의 정세 변동과 청나라 황실의 내분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청나라가 쇠락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으며, 조(朝)·청(淸) 국경 영토의 측량과 백두산정계비 설립은 청나라가 중원으로부터 철수하여 영고탑으로 귀향하기 위한 퇴로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인식되었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기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이고, 영고탑회귀설이 18세기 조선의 정계와 행정계, 지식층 속에서 횡횡하게 된 이면

30) 영고탑회귀설의 양상에 대해서는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64-93쪽을 참조하기 바람.

적인 한 계기는 북벌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벌론이 18세기 들어서 대명(대명)의 리론과 존주론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전략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으며, 대신 청나라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배워서 국가발전을 이룩하자 하는 국가재조론이 북학파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나갔다는 사실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다. 북벌론은 본질적으로 그 출발부터 실질적인 실현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분론에 가까웠던 것인데, 18세기 이후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국가와 사회를 이끌 실용적인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 나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식적인 국가전략의 부재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북학파란 한 지식인 그룹의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영고담회귀설의 유행과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식인들의 대응 양상 속에는 청(淸)·명(明)에 대한 명분론적인 인식과 대청방어(對淸防禦)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일견 모순적인 논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북벌론이 전화(轉化)해 가는 또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

일단 영고담회귀설은 광범위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집된 정보와 이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분석에 근거한 군사전략의 일부가 아니라, 뚜렷한 근거가 없는 바램이 만들어낸 일종의 당위론적인 허위 테제에 해당한다. 애초에 청나라 만주족의 근거지는 흥경(興京)이지 영고담이 아니다. 이미 선조대부터 조선 정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에 기반한 청나라의 영고담 기원설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옹정제에서 건륭제로 이어지는 청나라 최고의 치세에 대한 조선의 판단 착오도 같은 오류의 차원에 놓여 있다. 강희제는 삼번(三藩)의 난을 평정하고 중원의 반청 및 명 잔존세력을 일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륭제는 만주, 대만, 내·외몽고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분할 통치했다.³¹⁾ 이러한 조선의 판단 착오는 청나라 내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객관적인 정보마저도 일방적인 방향으로 호도하는 인식체

31) 이에 관해서는 이춘식,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2, 409-420쪽을 참조하기 바람.

계의 오류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랑캐인 청나라는 당연히 망해야 하고 망할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론적인 인식이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대의 성세를 누리고 있는 청나라를 망국의 국가로 파악하게 하는 기득권층의 인식논리 속에는 실질적인 북벌을 수행할 능력은 없으나 대청복수는 이루고 싶은 강력한 바램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벌론의 비현실성과 실질적인 추진전략의 부재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역설적으로 현실 정세에 대한 판단 오류와 실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전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현실적인 명분론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시대착오적인 소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명분론적인 북벌론의 잔재는 청나라의 영고담회귀 과정에서 발생할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경 침공과 이로 인한 전면전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숙종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청의 영고담 회귀 과정에서 평안도 내륙지역과 함경도 전역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때 몽고가 심양과 영고담 사이에서 청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이 청과 전면전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청나라의 내부 정세와 중국 대륙의 동향에 대한 정보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차츰 현실화됨에 따라 영조대에는 청의 예상 진로가 평안도의 청북지역과 함경도의 북관지역 등으로 좁혀지기는 했지만, 영고담회귀설을 중심으로 한 비현실적인 국제 정세 인식은 18세기에든 여전히 지속되었다. 다만 전면적인 전쟁에 대한 대비론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북방 방어라는 국지적인 전쟁에 대한 대비론으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청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것이며, 영고담 회귀시 조선의 북방 영토를 거쳐 갈 것이라는 기본 논리는 변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승되었던 것이다.³²⁾

32) 이종성(李宗城: 1692-1759) 같은 이는 청나라가 영고담으로의 회귀시, 조선의 육진(六鎭)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므로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관해서는 배우성,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전계서, 78쪽을 참조하기 바람.

18세기 일부에서 지속된 북벌론의 한 국면은 이러한 영고탑회귀설과 관련되어 있다. 숙종조의 대표적인 북벌론자인 윤희(尹鑄: 1617-1680)는 남중국에 웅거한 반란세력인 오삼계와 제휴하여 북벌군을 심양으로 출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윤희는 대만에서 반란을 일으킨 정성공(鄭成功) 세력과 연대하여 청나라와 외교를 단절한 이후, 오삼계와의 연합군을 심양으로 출동시키면 10일내에 관내로 진출할 수 있다는 강경론을 폈다. 한편 윤희의 강경 북벌론이 현실적으로 전화한 것이 바로 내수의양론(內修外攘論)이다.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을 필두로 한 내수의양론은 효종 조의 북벌론을 그대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정도의 현실인식은 보여준다. 그러나 명나라 말기의 군사지도인 「요계관방도」³³⁾를 상징적으로 내세운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명분론적인 천하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화이론적인 세계관을 구현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선 통치 질서의 수장인 왕에게 원론적인 자기성찰을 요구함으로써 정신적인 차원에서 소중화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고탑회귀설과 연계하여 18세기에 제기된 북벌론에 대하여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회의하는 논자들의 비판론도 그 안티테제로 존재했다. 개발론(開發論)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개발론의 대표자는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다. 남구만은 청나라 군사지도인 『성경지(盛京誌)』를 구해옴으로써 영고탑회귀설의 오류를 지리적으로 증명했다. 영고탑회귀설과 관련한 조선의 위기의식이 중국의 지리를 파악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것으로 청나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대신 국경지대의 전면적인 개발과 행정 체계의 구축을 주장했다. 관방 지방을 개발하여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 국경 방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개발이 곧 최선의 대청

33) 숙종의 재가를 받아 1706년(숙종32)에 10폭 병풍 형식으로 완성된 군사지도로, 명나라가 멸망한지 이미 80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의 군사편제를 담아낸 시대착오적인 지도이다. 이이명은 여기에서 명나라의 훌륭한 방어태세와 군사시설을 기록했다. 이에 관해서는 이찬,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1, 383쪽을 참조하기 바람.

방어(對淸防禦)라는 논리이다.³⁴⁾

18세기 중엽부터는 청이 대내외적인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청나라 내부 정세에 대해 사신들이 직접 견문한 고급 정보가 유입되고, 『성경지』와 같은 청나라의 군사지도가 수입되면서 영고탑회귀설의 오류가 수정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8세기 지식인들에게 확인되는 영고탑회귀설의 의미 변화는 북벌론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한 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가 국방에 대한 위기의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고탑회귀설은 그 구체적인 양상과 이에 대한 인식이 세부적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18세기 후반인 정조 연간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었으며, 북벌론의 후대적 변모 과정의 한 국면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3. 「황생전」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상과 의의

(1) 적극적인 요동 점령론과 축차적인 현지화론

김기는 북쪽을 청나라 오랑캐로부터 방어한다는 북수(北守)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양·요동 점령 및 북방 진출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서 요동 정벌은 민족의 북방 고토회복의 일환으로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요동지역은 청나라의 등장

34) 남구만은 국경지역에 무산부(茂山府)와 후주부(厚州府)를 설치하고, 길주(吉州)와 갑산(甲山) 사이에 도로를 개통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론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서는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전개서, 73쪽을 참조하기 바람.

35) 청나라에 대한 군사지리적 지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전히 영고탑회귀설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김문식, 『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 1996, 107-115쪽을 참조하기 바람.

과 함께 조선 중기 이후의 북방 정책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청나라가 후금이었을 무렵부터 요동에 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원을 침공했기 때문에 광해군 조부터 조선군과 명군의 군사연합작전 지역으로 요동 점령이 고려된 바 있다.³⁶⁾ 조선후기로 가면 요동점령론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는으나 그 전략적인 가치는 중요하게 다뤄졌다. 청나라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이들이 원래의 발상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영고탑회귀설을 배경으로 하여 요동지역이 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군사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형성되었다. 청나라의 변란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북방 방어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조선 후기의 군사론 속에서도 역시 요동 지역이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군사론에서 언급되는 요동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차원에 한정된 것이었다. 광해군조에 검토된 요동점령론으로부터 축소되어 청나라와 몽고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전략상의 요충지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청나라가 영고탑으로 회귀한다면 몽고가 제3세력으로 부상할 것이고, 몽고족은 관외의 요충지인 심양을 획득하기 위해 조선을 우회하여 군사를 동원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국방인식은 몽고의 군세를 확대해석한 정보 수집상의 오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조선 후기 국방론 속에서 요동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잘못된 판단 속에서 짜인 전략 속에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황생전에서 김기가 제시한 요동 전략은 단순 방어가 아닌 적극적인 공략론이었다. 청나라가 영고탑으로 회귀하고 나면 그 일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북방고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공세론을 보여준다. 이러한 김기의 요동 공략론은 당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국방론과는 다른 판단 속에 위치한다. 청나라의 변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대

36) 『光海君日記』, 권127, 光海君 10년 윤4월 5일조; 『光海君日記』, 권127, 光海君 10년 윤4월 15일조.

한 김기의 판단은 철저히 청나라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다. 몽고의 군세에 대한 확대해석의 오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요동이라는 북방고토를 중심으로 하여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에만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다. 요동에 관한 김기의 군사전략이 수세적인 방어론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세론으로 짜여져 있는 것도 이처럼 정확한 정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의 요동 공략론은 3단계의 단계적인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요동공략을 위한 3단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일 먼저 심양(瀋陽)을 공략하여 점령한 후에 본격적인 요동 공략의 거점으로 삼는다.³⁷⁾
- ② 백두산 주둔군을 영고탑으로 출전시켜 점령한 후에 심양과 함께 요동의 제2거점으로 삼는다.³⁸⁾
- ③ 황해도 주둔 수군(水軍)을 서해로 움직여 산동성을 공략, 점령한 후에 심양·영고탑과 이원적인 연합체계를 구축한다.³⁹⁾

김기의 요동 공략론은 백두산-심양, 백두산-요동, 황해도-서해-산동성의 세 루트를 활용하며, 심양·영고탑·산동성을 군사 거점으로 삼는다. 심양 공략을 중심으로 하여, 영고탑을 함락한 다음, 이 요동에 주둔한 군사와 협력작전을 펴서 등주·래주를 공략하고, 확장된 군세를 바탕으로 형주·양주·예주·곤주·서주·양주 일대를 손에 넣는다는 축차적인 점령론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요동 공략을 중심으로 한 4단계의 축차적인 점령론은 청나라의 불안정한 내정 상태를 배경으로 요동-심양-영고탑, 등주·래주-형주·양주-예주·곤주·서주·양주에서 발행할 힘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

37) “以大炮破其城門，乃可拔之，既得盛京（中略）儲蓄甚多，當取爲我有，以給軍用多”，『黃生傳』，『寄軒遺稿』。

38) “命一大將，聚衆兵於白頭山中，待夏月極熱，進軍拾取靈固塔（中略）於時，搗其巢穴，取其財物，與遼師連營，相通以給軍需”，『黃生傳』，『寄軒遺稿』。

39) “又使一將，率水軍五萬，自黃海道，發船西海，值泊登萊二州（中略）與遼帥爲輔車之勢”，『黃生傳』，『寄軒遺稿』。

용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축차적인 점령 확대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바로 명나라 잔여세력과의 연합이다. 축차적인 점령이 3단계까지 완성되고 나면 명나라 잔여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등주·래주·형주·양주·예주·곤주·서주·양주 등 그 유민들이 집결해 있는 지역까지도 우리의 영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4단계의 축차적인 점령론은 동북아 정세를 청-조선-명의 유민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8세기 북방 군사론이 동북아의 정세를 청-조선-몽고의 3자축을 중심으로 파악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기의 요동 점령론이 중국 대륙 북방을 중심으로 한 동시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기의 요동공략 및 축차적인 점령론은 단기적인 북벌이 아닌 장기적인 토착화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기는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은 토착적인 현지화론이다. 토착적인 현지화론은 축차적인 점령론을 통해 요동을 확보한 후에 전과를 확대하는 전술이다. 첫째, 요동과 산둥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한 뒤 군대를 장기 주둔시킨다.⁴⁰⁾ 둘째, 군사를 농병(農兵)으로 임시 전환, 둔전을 개간하여 현지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체계를 구축한다.⁴¹⁾ 셋째, 휴식을 취하면서 요충지를 봉쇄하여 방어체계를 공고히 한다.⁴²⁾ 넷째,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한 명나라의 잔여세력과 연합하여 청나라를 멸망시킨다.⁴³⁾ 다섯째, 명나라로부터 영고탑을 중심으로 한 요동 일대를 위임받아 북방의 고토를 회복한다.⁴⁴⁾ 여섯째, 도읍을 평양으로 옮겨 요동, 영고탑, 조선 세 나

40) “旣得盛京則亦用火器，以爲固守之計”，『黃生傳』，『寄軒遺稿』.

41) “廣開屯田，以爲王師久留之計”，『黃生傳』，『寄軒遺稿』.

42) “守要害而備，援兵衝突之患”，『黃生傳』，『寄軒遺稿』.

43) “中原遺民，必聞風興起，爭殺長吏，以應我帥，於時，收其豪傑，分地以地，而使各自爲戰，則天下人民之爲漢人者，比諸清人，爲十分之九，而此則，無論智愚，皆爲我邊之人，衣冠殊制，人心不異，夫如是不過一年，天下震動，我衆而彼寡，我強而彼弱，雖有智者，亦不知爲慮計矣(中略) 散亡將盡矣”，『黃生傳』，『寄軒遺稿』.

라를 아울러 통치한다.⁴⁵⁾ 이 토착적인 현지화론은 공략한 요동, 영고탑을 조선의 영토로 합병하는 전략으로 기획되어 있다.

김기는 토착화와 현지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지의 풍토와 지리, 만주족의 습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맞춤 전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예컨대 영고탑 공략시 백두산 주둔군을 움직이는 시기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주족의 습성이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에는 약하기 때문이다. 6·7월 무렵에 찾아오는 영고탑 일대의 더위를 만주족들이 견뎌내지 못하니 이때 공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⁶⁾ 만주족의 체질을 적극 활용한 전략이다. 거꾸로 이는 전쟁터가 될 현지의 기후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영고탑이 한반도 보다 위도 상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의 그것에 비하면 더위가 약하다. 즉, 훨씬 더운 여름을 겪어온 조선 군대에게 유리한 최적의 기후 조건이 된다고 파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지리(地理)와 인화(人和)란 생태적·자연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이러한 요동 공략론과 북방 고토 회복론의 전술적 기반 속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조선의 국방론과 군사론을 풍미한 영고탑회귀설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영고탑회귀설과 관련된 논자들은 예외 없이 몽고가 심양과 영고탑 사이에서 청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이 청과 전면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오삼계의 난 등으로 중국 정세가 유동이던 숙종초에 의주부윤 조성보는 몽고가 장차 북경과 심양간 길을 차단하고 심양을

44) “帝命則，皇帝必以遼東靈固塔，屬之於我，作爲藩屏，使備北虜”，『黃生傳』，『寄軒遺稿』.

45) “我國旣得此兩地，則當移都築城，統理三國，而國力稱裕”，『黃生傳』，『寄軒遺稿』.

46) “命一大將，聚衆兵於白頭山中，待夏月極熱，進軍拾取靈固塔，何以待夏進兵，蓋北胡之性，能耐寒而不能耐暑，且北土風氣，雖當夏月，不知甚熱，而每值六七月之交，大暑暴至，熱如爐火，胡人皆吐舌，臥於樹陰之中，但飲藥物，不能動身，如是數三十日之後，暑熱漸退，始乃蘇醒，我軍必俟，其極熱之時，出其不意則，彼必束手就縛，於時，搗其巢穴，取其財物，與遼師連營，相通以給軍需，則靈固塔即彼虜”，『黃生傳』，『寄軒遺稿』.

칠 것이며, 나아가 북경방면으로 세력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첩보를 조정에게 올린 바 있다.⁴⁷⁾ 조선이 북방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후의 몽고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면 몽고의 주요 공략지인 심양을 선공하여 배후를 안전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심양이 청국에서 지니는 군사적·전략적 위상 외에 몽고와 청의 군사 관계 면에서도 심양은 조선의 북방 공략상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이다. 김기 역시 영고탑이 청나라의 근원지라는 인식⁴⁸⁾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의 적극적인 요동 점령론과 단계적인 현지화론이 기존의 영고탑회귀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실질적인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을 기반으로 한 사회 개혁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동적인 북수(北守)와 명분론적이 탁상공론으로 귀결된 영고탑회귀설과 달리 김기의 요동 점령론과 현지화론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륙공략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론의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⁹⁾

(2) 청나라 지형에 맞는 진법 운용과 첨단무기 개발

김기는 요동 진출과 축차적인 점령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

47) 『肅宗實錄』 3, 肅宗 1년 4월 甲午.

48) “靈固塔即彼虜千年屈宅”, 『黃生傳』, 『寄軒遺稿』.

49) 18세기 조선의 군제가 그야말로 虛設化 방향으로 나타나며, 군사 육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김기의 북벌론은 다분히 이상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황생전」에 나타난 김기의 북벌론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는 논문이므로, 18세기 조선의 군사나 군제 운영의 양상과 관련하여 김기의 북벌론이 지니는 실현가능성의 여부 혹은 『풍천유향』과의 관련성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의 논제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 부분은 본 연구자가 당초에 본격적인 후속 연구를 준비 중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한편 「황생전」에 나타난 18세기 북벌론이 사회발전론의 성향을 띠는 영고탑회귀설이 더 맹목적으로 민간에게 변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읽어볼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 작가의 작품 속에 존재하는 작가의식의 다층적인 측면이 될 터인데, 필자는 이 부분을 『「황생전」의 작가의식에 관한 연구』란 후고에서 다루고자 준비 중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핵심은 바로 청나라의 주력 부대인 기병(騎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 무기 및 진법의 운용이다. 전략이 총체적으로 군대를 움직이는 작전계획이라면, 전술은 구체적인 전투에서 군사와 무기, 진(陣)을 운용하는 기술이다. 김기가 「황생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동 점령 전략의 핵심 요체는 다음의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청나라의 발 빠른 기병을 제압할 수 있는 전술 개발이다. 두 번째는 요동의 광활한 대륙에 적합한 진법의 창안이다. 김기는 이 두 가지 필승 전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술로 전차를 중심으로 활용한 진법을 주장하고 있다.⁵⁰⁾ 일반적으로 진법이란 군병력의 행렬(行列)로서 진을 설치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 군의 편제와 용병술 외에 군법(軍法)·통신(通信)·행군(行軍)·전투훈련을 포괄한다. 황생전에 나타난 김기의 군대 운용 전술은 군사훈련과 작전방식, 병력 및 화력배치 등 진법의 일반적인 체계를 고루 갖추고 있는 조직적인 것이다. 김기가 「황생전」에서 선보이고 있는 진법의 형태는 일반적인 병법이론과 비교할 때, 상대인 청나라 군대의 진법을 상대하기에 알맞은 공수(攻守) 전략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진법은 거(車)·보(步)·기병(騎兵)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김기의 진법은 이러한 전통적인 구성요소 중에서 거병(車兵)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운영한 진법을 구사하고 있다. 청나라의 철기(鐵騎)에 대응하여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한편 적군에 대한 파괴력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거진(車鎭)의 전면화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차병(戰車兵)의 적극적인 활용은 명나라의 장수인 척계광(戚繼光)이 북방의 기병을 제어하기 위해 계주(薊州)의 전투에서 도입한 전술이다. 김기는 척계광이 전차병을 운용해서 북방 기마민족의 철기병(鐵騎兵)을 효율적으로 제압했던 것에서 착안하여 여진족의 후예인 청나라 철기병의 속도전과 파괴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전차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진법을 구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김기의 진법의 핵심은 척계광의

50) “其制鐵騎之策, 非車戰不能”, 『黃生傳』, 『寄軒遺稿』.

『기효신서』로부터 전차전술(戰車戰術) 자체는 차용하되 그것을 북벌을 감행할 조선 군대 실정에 맞게 변용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기의 이러한 전술은 『기효신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다.⁵¹⁾

그런데 『기효신서』에 대한 비판과 토착 전술에 대한 요구는 18세기 조선의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군대의 진법은 『기효신서』를 축약한 보급서인 『병학지남(兵學指南)』⁵²⁾을 중심으로 체계화 되어 있었다. 『병학지남』은 조선 후기까지도 군사전술의 주된 교범으로 자리잡고 있었다.⁵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군대가 운용하는 전술서로서의 『병학지남』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17세기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즉, 명나라가 주도하는 천하질서가 붕괴되고 청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의 관계사가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명군(明軍) 병서의 적용은 그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긴박한 대륙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정작 조선 군대가 필요로 했던 것은 명나라가 제국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확립한 『기효신서』가 아니라, 청군(淸軍)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서였다고 할 수 있다. 청나라에 패배한 명나라 군사서의 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에 이미 방호대법(防胡大法)이라고 알려진 『연병실기(鍊兵實紀)』가 도입⁵⁴⁾되었으며, 현종-숙종 대를 거치면서 『기효신서』의 일명 척법(戚法)을 비판하는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⁵⁵⁾되었다. 영·정조대는 이러한 척법에 대한 비판론이 본격적으로 논리

51) “目今軍門操練之法，卽明將戚繼光新書之餘陰也，此法便於倭，而不利禦戎也”，「黃生傳」，『寄軒遺稿』。

52) 『병학지남』은 선병(選兵)·편오(編伍)·전법(戰法)·기계(器械)·수초(守哨)·주사(舟師) 등을 조목별로 요약한 병서로, 정조 22년인 1708년에 이상정(李象鼎)이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註解)』라는 주해서를 펴내기도 했다.

53) 이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사상사』, 육군인쇄공창, 1981, 28쪽을 참조하기 바람.

54) 『宣祖實錄』, 권182, 宣祖 37년 12월 辛酉條.

55) 『顯宗實錄』, 卷7, 顯宗 5년 1월 癸酉條.

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척법을 대체할 병서와 전술 마련이 다각도로 시도된 시기였다. 사도세자가 『기효신서』의 6기(技)를 수정 보완하여 18기로 변용⁵⁶⁾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조 35년인 1759년에 『무예신보(武藝新譜)』⁵⁷⁾가 만들어졌으며, 정조 13년(1789)에 이르러 마침내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가 간행⁵⁸⁾됨으로써 척법을 대체할 병서 마련이라는 국가적인 노력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었다.⁵⁹⁾ 「황생전」에 나타난 김기의 진법은 『기효신서』에서 『병학지남』, 다시 『무예신보』에서 『무예도보통지』로 이어진 조선후기 진법의 발전 과정 속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국제군사정세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급감한 『기효신서』를 대체하여 실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진법 개발 과정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김기의 진법이 북벌을 성공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그가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한 척법과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기의 진법은 전차를 적극 활용하여 이에 맞게 화기를 배치하고 병력수나 그 운용을 조절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효신서』의 척법과 유사하다. 전차에 다양한 화포를 탑재하여 위급할 때 발사하도록 함으로써 전차와 화포의 연합작전을 구사하며, 또 따로 화기(火器)에 능한 정예부대를 배치하여 지원사격을 하도록 병력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기조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차이점은 진법의 구성과 운용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거영(車營)의 구성 측면이다. 『기효신서』는 편상거(偏廂車)를 중심으로 전차진이 짜여진다.⁶⁰⁾ 진법의 구성 측면이다. 『기효신서』에 나타나

56) 『凌虛關漫稿』, 「武藝六技演成十八船說」.

57) 「武藝六技演成十八船說」.

58) 『武藝圖譜通志』, 序.

59) 이상의 18세기 병학론의 흐름과 양상에 관해서는 백기인, 「18세기 송규빈의 국방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9를 참조하기 바람.

60) 『기효신서』의 전차진은 거영(車營)은 좌우부(左右部)로 구성되어 있고, 4차(車)가 1국(局)을, 4국(局)이 1사(司)를, 4사(司)가 1부(部)를 이룬다. 『紀效新書』, 卷之十六, 別

있는 척법은 거영(車營)과 기영(騎營)의 연합 진법으로 되어있다. 편상거는 진나라 마용(馬隆)이 녹각거(鹿角車)와 함께 만든 것으로 조선조의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좁은 도로에 가장 적합한 전차화거로 꼽아온 것이다.⁶¹⁾ 외적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전차로 지목된 것이 바로 편상거인 것이다. 예컨대 18세기 초반에 경상좌도의 수군 절도사를 지낸 양완(梁玩)⁶²⁾은 중국의 편상거와 녹각거의 장점을 취합하여 당대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량한 편상녹각거를 고안해 낸 바 있다.⁶³⁾ 한편 구한말의 항일 의병장인 방산(舫山) 허훈(許薰: 1836~1907) 선생 역시 산

集, 『車營編』, 『기효신서』에 나타난 전차진의 구성법 및 제반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백기인, 『18세기 송규빈의 국방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0을 참조하기 바람.

- 61) 이상에 대해서는 허훈 저, 이우성 옮김, 『방산선생문집』, 이우성, 『한국 고전의 발견』, 한길사를 참조하기 바람.
- 62) 양완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친총(千總)으로 좌선봉장이 되어, 강화도 정족산(鼎足山)에 침입한 제독(提督) 로즈가 지휘한 프랑스 함대를 대파, 다량의 신무기를 노획한 공으로 한성부좌윤(左尹)에 특진하였으며, 보수적인 척화론자(斥和論者)로서 신임을 얻어 어영(御營)·금위(禁衛)·포도(捕盜)의 각 대장을 거쳐, 1875년 형조판서, 1884년 공조판서를 역임한 구한말의 대표적인 군사전문가이자 장군인 양헌수(梁憲洙: 1816-1888)의 할아버지이다. 양완의 집안은 대표적인 무장 집안으로 조선말기부터 구한말, 외세의 위협으로 조선의 자주국방이 위태로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정계로 진출한 가문이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군사전문가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 63) 양완 순조 때 지은 『악기도설(握奇圖說)』에는 수레 위에 짐을 얹어서 아군 병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화거인 바퀴 2개가 달린 편상녹각거가 소개되어 있다. 이 편상녹각거는 수레의 앞쪽에 칼날이 달린 2개의 녹각목을 설치하여 적의 접근을 막으며, 수레 위에는 나무 지붕을 얹고 소가죽으로 덮어서 적의 시석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지붕의 길이는 6척, 높이는 3척이며, 지붕의 좌우는 각각 2척 5촌이다. 편상녹각거 1대에는 2명의 병사가 앞에서 끌고 2명의 병사가 뒤에서 밀며 차장(車長) 한 명이 조정을 담당했다. 양완은 편상녹각거로 50보 간격으로 4개의 층을 이루면서 부챗살 모양으로 진을 펼치면 수비하기에 편하고 공격하기도 쉽다고 했다. 이 편상녹각거가 대규모로 제작되어 배치된 적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양완이 지은 『악기도설』에는 편상녹각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진법과 전술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그의 손자인 양선수가 병인양요 당시에 큰 활약을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군사 관련 연구에서는 보고 있다. 이상에 관해서는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을 참조하기 바람.

과 구릉이 많고 상대적으로 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좁은 조선의 지리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차로 편상거를 제시한 바 있다.⁶⁴⁾

그러나 편상거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지리적 특수성에 적합한 전차이다. 『기효신서』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군사 전문가들이 여전히 편상거를 중심으로 진법을 짜거나, 이를 개량한 전술에 머무른 것은 산과 구릉이 많고 상대적으로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전차가 편상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본다면 당대 조선의 진법이 편상거를 중심으로 한 전차의 운용 전술로 고착화 되어 있었다는 말도 된다. 즉 조선 군대의 전형적인 전차진이 편상거 중심으로 짜여져 간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전술이 언급되건 아니되건 간에 조선의 군대를 중원으로 움직여 가자는 북벌론에서도 이러한 진법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정작 중원 대륙 속에서 군대를 운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조선의 국토 내부에 적합하게 진화해온 편상거진(偏廂車陣)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의 북벌론 속에서 실질적으로 진법 자체를 고민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대륙의 지리적 특수성에 적합한 진법의 창안과 무기의 개량 및 개발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수레 위에 덮개만 얹었을 뿐 좌우사방이 뺀 뚫려 있는 편상거로는 철기로 무장한 청군의 기병을 대적할 수 없다. 편상거를 비롯한 기존의 전차가 궁수가 올라타서 폭약을 담은 활을 쏘는 화전거(火箭車)에 불과하다면, 김기의 무장거는 명실공히 본격적인 현대적 개념의 전차에 가까운 것이다.

김기는 청의 철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바로 무강거(武剛車)이다. 일반적으로 무강거는 건개(巾蓋)가 있는 옛 전차 가운데 하나로 서한(西漢) 시대 때 만들어졌으며, 전차 전투나 의장(儀仗)에서 맨 앞에 섰다⁶⁵⁾고 알려져 있으나, 김기의 무강거는

64) 許薰, 『舫山先生文集』, 한국문집편찬위원회 편, 경인문화사, 1994.

65) 이에 대해서는 유홍·갈홍 지음, 김강환 옮김, 『서경잡기-西漢 사회에 관한 132편의 건

종래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다. 김기가 나뭇의 군사무기에 관한 지식을 활용·연구하여 새롭게 창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기의 무장거는 철로 된 덮개가 있고, 뚫린 공간이나 구멍이 없이 철로 사방이 막힌 구조로 되어 있으며, 김기가 들이받는 빨이라고 표현한 칼날로 덮여 있다. 무장거를 움직이는 군사는 이처럼 사방이 막힌 틀 속에 들어가 있으며 절대 노출이 되지 않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칸도 따로 설계되어 있으며, 폭약을 장착한 화기를 그 속에 숨겨놓고 달리면서 화포를 발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무장거의 설계는 현대의 전차에 거의 가깝다고 할 수 있다.⁶⁶⁾

이러한 김기의 무장거는 칼을 박은 철강으로 밀폐되어 군사와 화기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군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적군에 대한 최대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청나라 군대의 철기병과 비교를 해보면, 무장거의 위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철기병은 비록 강철 갑옷으로 몸을 둘러쌌다 하더라도 기동력의 주체인 말과 인간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취약점을 노출한다. 철갑옷을 입은 말의 기동력이 떨어지거나 적의 병기에 의해 말이 살상될 시에 철기병은 곧바로 위협에 노출된다. 이에 반해 김기의 무장거는 생명체가 아니며 그것을 조정하는 인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철 틀으로 된 기계 자체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김기가 청나라 군대의 주력 무기로 지적한 활·쇠뇌도 이 철갑차인 무장거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표면에 설치되어 있어 있는 칼날과 장착된 화포의 살상력 또한 내부에 숨겨져 있는 구조로 인해 압도적인 우세를 자랑할 수 있다. 일단 접근전이 벌어져 적군이 무장거 위로 뛰어들고자 시도를 할 경우, 칼날이 표면을 덮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손상은 최소화 된다. 반면 백병전을 벌이려고

문록」, 예문서원을 참조하기 바람.

66) “所謂武剛車者(中略)而偏箱鹿角鐵籠, 隨其地勢, 皆有可用(中略)而中藏弓炮, 且馳且射則”, 「黃生傳」, 『寄軒遺稿』.

했던 적군 병사 자신은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화포가 기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적군은 언제 어디서 폭약이 발사될 지 예측할 수 없다. 대신 적군인 청군의 철기는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차이는 무장거의 파괴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⁶⁷⁾

한편 김기의 무장거는 수륙 양동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⁶⁸⁾ 김기는 궁극적으로 요동을 점령한 후에 산동의 명나라 잔여세력과 연합작전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산동 지역에는 운하가 발달한 지형이 많다. 수전(水戰)과 육전(陸戰)을 동시에 구사해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김기가 무장거를 강철로 사방을 막은 틀로 설계한 것은 이러한 수륙 양동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기의 무장거는 물 위에서는 배로, 육지에서는 전차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바, 철로 된 현대적인 수륙 양용 전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육지에서만 기능하게 되어 있는 종래의 전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설계이며, 시대를 뛰어넘는 최선의 기획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전차진의 운용 측면이다. 『기효신서』를 기반으로 한 조선의 기존 진법 운용법은 기병과 거병을 좌우 양부로 하여 보병을 배치하는 것이었다.⁶⁹⁾ 이 전법에서 화공(火攻)은 편상거를 기본으로 한 거영(車營)의 화전거(火箭車)와 기영(騎營)의 기병이 양익을 이루며, 보병이 각 영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조선 군대의 장점인 화포 공격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 김기의 진법은 철저히 무장

67) “以虜之弓弩, 不能透武剛鐵籠, 而鐵騎不能衝鹿角故也”, 「黃生傳」, 『寄軒遺稿』.

68) “所謂武剛車者, 在水爲船, 在陸爲車”, 「黃生傳」, 『寄軒遺稿』.

69) 『기효신서』의 거진법(車陣法)은 편상거의 좌우에 양두(兩頭) 각 1문(門)씩을 배치하고 편상거의 위에 불랑기(佛狼機) 2가(架)를 설치하며, 모든 전차에는 군사 20명씩을 배치하고 각각 기(奇)·정(正)의 두 대로 나누어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효신서』에 나타난 거진법의 보다 구체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백기인, 18세기 송규빈의 국방론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을 참조하기 바람.

거를 핵심으로 짜여진 철포영(鐵砲營)이다. 화포를 내장하여 포격을 극대화한 무장거를 중심으로 진영을 구성함으로써 거영과 기영을 합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무장거를 지원사격하는 화포 부대를 보강하고 있다.⁷⁰⁾ 쇠뇌와 철갑으로 무장한 청나라의 철기병 부대를 부술 두 번째의 방법으로 화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⁷¹⁾ 화포 부대는 보병에 의해 운용된다.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김기의 거진(車陣)은 무장거의 철포영을 중심으로 화포로 무장한 보영(步營)이 지원사격하는 형태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다. 김기가 현재 조선이 청나라에 비해 유일하게 앞선 기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화기 및 화포, 화약을 활용한 포병(砲兵)을 그가 개발한 무장거와 함께 연계한 진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는 철포진(鐵砲陣)을 다양한 무기를 운용한 전술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진법을 구사한다. 김기의 진법에 동원되는 무기는 갖가지 화기로부터, 공성 장비에 이르기까지 재래무기·장비는 물론 당대 최첨단 무기·장비까지 총동원된 것이었다. 거론되는 무기와 장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기(火器)·화포(火砲)·화약(火藥)

지뢰포(地雷砲), 매화포(梅花砲), 자기포(自起砲), 철관우(鐵關羽), 진천뢰(震天雷)

② 육전(陸戰) 보병용 기계

철호립(鐵虎笠), 구겸창(鉤鎌槍), 수수파(隨手破)

③ 공성기계(攻城器械)

운제(雲梯), 충거(衝車), 석포(石砲)

70) “車者乃不食之馬，有脚之城，而又間發鐵關羽”，「黃生傳」，『寄軒遺稿』.

71) “器械之外最勝捷徑，莫如火砲”，「黃生傳」，『寄軒遺稿』.

이러한 김기의 진법은 기병으로 사용할 말이 부족한 조선 군대의 실정과 청나라 철기병의 위력, 요동 및 중원의 지리적인 특성을 두루 고려한 독자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⁷²⁾ 지리와 군사, 무기 등 실질적인 전투에 활용할 전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적확하게 파악한 결과이다. 놀라운 점은 야전전투를 경험한 실전 군사 작전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의 진법이 당대 군사 전문가가 내놓은 어떤 전략보다도 북벌의 실전 전투를 아군이 우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진법과 전술이 당대에 존재하지 않은 최첨단 무기의 개발과 창안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예컨대 새로운 첨단 무기는 유형원(柳馨遠)⁷³⁾이나 윤휴(尹鑄)⁷⁴⁾와 같은 17세기 철학자나 양완⁷⁵⁾과 같은 18세기 실전 군사가에 의해서도 주창되었지만, 이들이 제안한 전차는 기존의 편상거를 개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이 최첨단 무기라고 개발한 병거(兵車)는 현대적인 개념의 전차로 보기 어려우며, 단지 동시 발사할 수 있는 화포를 엮은 수레에 불과했다. 반면 김기의 무장거는 현대적인 수륙양용 철갑차로 당대의 기술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었다.

김기는 국내의, 고금을 막론한 병서와 군사서를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군사 지식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화포와 화기, 각종 공성장비 등을 동원한 전술을 설명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첨단 무기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대목도 북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장비의 혁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기는 영토, 인구, 군사력, 국력 등 전방위적인 조건에서 뒤지는 조선이 북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의

72) “遼野平廣，正合車戰之地也”，「黃生傳」，『寄軒遺稿』.

73) 김준석, 「조선후기 국가재조론의 대두와 그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220쪽.

74) 한우근, 「백호 윤휴 연구(2)」, 『역사학보』 19, 1962, 106-114쪽.

75) 노영구, 「梁玩의 『握奇圖說』과 戰車 운용론」, 『문헌과 해석』 6, 1999.

군사에 적합하면서도 중원의 지리적 조건 속에서 청군의 철기병에 효율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의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부분에 관한 김기의 관심과 지식이 넓고도 깊었으며, 실무 경험이 결핍된 가운데서도 최적의 정책 제안을 하려고 폭넓은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만큼 전문 군사가의 병서·군사서를 광범위하게 참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는 외국의 첨단문물을 연구하는 가운데 서양의 최신식 무기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첨단 지식이 무강거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진법의 창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무강거를 중심으로 첨단 군장비를 활용한 진법은 첨단기술전을 주장하는 이러한 김기의 북벌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⁶⁾

(3) 전통적인 화이론과 진보적인 부국강병론의 발전적 결합

김기는 북방 선제공격과 고토회복, 공격적인 방어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중화부흥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 흠여져 있는 한족(漢族)과의 연대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는 요동 지방 여기저기에 흠여져 있는 명나라의 후예, 즉 한족과의 결탁을 주장한다. 청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적극적인 선공책을 중국 대륙 내부에서 호응해줄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여전히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족의 후예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76) 물론 김기가 주장하는 진법운용이나 첨단무기의 대부분을 중국 병서에서 등장한 것이 차지하고 있으며, 송규빈의 『풍천유향』에서 보이는 사유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김기의 북벌론에서 확인되는 진보성이 그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김기의 북벌론과 군사론이 중국 및 18세기의 다른 군사이론가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이 있으며, 김기만의 고유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다. 이러한 명나라 잔존세력과 연합 및 청나라 정복론은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해 있다. 김기는 청나라가 망하여 사라지면 명나라가 복권하여 천하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조선이 제후의 나라로서 명 제국을 섬기면 요동과 영고탑을 줄 것이니 도움을 옮겨 제후국으로서 명을 중심으로 한 천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⁷⁷⁾하고 있다. 명나라를 대신하여 청나라에 복수하고 명황실을 복원⁷⁸⁾하는 동시에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 속에 제후국으로 편입되어 들어감으로써 화이론적 세계질서를 회복하자는 화이론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대 18세기 조선 사회에서는 화이론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이론이 존재했다. 첫째는 전통적인 화이론이다.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는 「황마찬(皇馬贊) 79)에서 북벌을 통해 청의 연산(燕山)과 계수(薊水)에서 말을 달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바 있으며, 정조는 『존주회편(尊周彙編)』을 편찬하여 사회의 복고회귀를 꾀하는 한편 북벌론을 존주론으로 정리⁸⁰⁾하였다. 두 번째는 북학파를 중심으로 한 상대주의 화이론이다. 북학파는 절대적인 화이론에서 전환하여 존주의식과 현실인식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에 대한 적개심 및 복수의식을 조선 사회의 발전론과 분리해서 청 문물로부터 배울 것은 받아들여자는 논리이다. 즉, 화이론에 따라 국가들을 등급화 하는 절대적 명분론을 탈피하되 그렇다고 대명이론(對明義理論)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명나라만을 화(華)의 중심으로 보는 사고를 버리고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조선의 사회문화적 후진성을 절실하게 인식하면서 반성

77) “天下既定，主上當斂軍而還，以俟皇命則，皇帝必以遼東靈固塔，屬之於我，作為藩屏，使備北虜(中略)而謹守候度，挾輔帝室，夫然則聖主功烈，高山桓文之上，而天下皆仰之矣”，黃生傳，『寄軒遺稿』。

78) “諭以復雪，興復之義，促令還復華制”，黃生傳，『寄軒遺稿』。

79) 권오영, 「凌虛關漫稿解題」, 『英祖·莊祖文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40쪽.

80) 이에 관해서는 정용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116쪽을 참조하기 바람.

없는 종래의 소중화주의를 비판하는 사고의 전환이다.⁸¹⁾ 이러한 북학파의 대명제의리론과 화이론은 복고적인 존주주의와 진보적인 사회개혁론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²⁾ 국부론을 앞세워 17세기 이래의 전통적인 화이론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고인 것이다.

김기는 북벌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전자의 전통적인 화이론을 계승하는 한편, 적극적인 북벌의 성공을 위해 사회 개혁론을 앞세웠다는 점에서는 북학파의 상대적인 화이론이 보여준 국부론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김기는 비단 「황생전」 뿐만 아니라 『기현유고』 소재 여러 편의 글 속에서 사회 개혁론을 주장한 바 있다. 김기의 개혁론은 세금, 정치제도와 같은 행정·정치 범주로부터 신분제도 철폐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범위까지 전방위적으로 뻗어있다. 다분히 급진적인 김기의 개혁사상은 궁극적으로 사회부강론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북학파를 비롯한 실학자들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황생전」에 나타난 김기의 사회제도 개혁론은 구체적으로 신분제의 타파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으로 정리 된다. 물론 신분제의 철폐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논의 중의 하나이다. 특히 18세기 대표적인 실학자인 홍대용이나 정약용에게서 이에 관한 보다 강력한 주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기는 이들과 신분제와 인재등용에 관한 사상의 흐름을 함께 하면서도 이를 북벌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논의의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황생전 에서 김기는 북벌의 성공을 위해 조선이 수행해야 할 개혁의 선결책이 무엇인가를 논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당금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선결 과제로 제시된 것이 바로 문벌 타파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책이다. 인재의 등용이

81) 18세기 북학파의 화이론에 대해서는 유봉학, 「18-9세기 연암일파의 북학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56쪽을 참조하기 바람.

82)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무, 「한국근대사의 성격 좌담회초」, 『동양학』 18, 1988, 579쪽을 참조하기 바람.

능력이 아닌 문벌에 의해 미리 정해지는 신분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북벌 전략이 있더라도 이를 운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양반이니 평민이니 하는 명칭부터 혁파한 후에, 나이가 열다섯이 되면 몸이 건강한 자는 군대에 들어가고, 학문이 뛰어난 자는 유생이 되고, 그 나머지는 농민이 되게 함으로써 철저히 개인별 능력에 따라 직임을 맡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은 가호당 세금을 내어 후방에서 군대를 유지할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맡고, 유생과 군인은 각각 문과와 무과에 응시하여 철저히 능력에 따라 북벌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행정과 군사의 전문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업무 중심의 등용체계를 제안하고 있다.⁸³⁾ 뿐만 아니라 유생과 군인의 발탁과 등용은 치사청(治事廳)이란 전문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인사청탁과 임용비리를 근절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⁸⁴⁾

이러한 김기의 인사 개혁 제도는 선천적으로 신분이 정해지는 기존의 사농공상 제도를 철저히 해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급진적이다. 게다가 개인별 자질과 수준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직능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기는 이러한 신분제 타파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북벌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해야 사회체제가 혁신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부가 축적이 되어야만 군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능력 있는 인재 등용을 통해 부국강병이 이루어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만 북벌을 감행한 후에 후방 걱정을 덜 수 있

83) “必欲有爲，先罷我國所謂兩班之名，自宰相之仲子，以下擇人，年十五以上，形體壯健者，錄於軍案，才學可取者，錄於儒籍，其餘則歸之於農，而有身戶庸調，以供軍需，入於儒籍軍案者，復其信使之，傳習所業（中略）不入儒籍軍案者，不許文武科赴舉，文武用人不問地閭，隨才任官，又別設一府，名曰治事廳，使大臣掌之搜訪，格外人士，才學出類者，聚於府中，養以厚祿，日夜講習兵事，至有一藝一能，有所可用者，亦皆抄選，生聚教訓，各極其方，如是十年，則庶可兵精用足，而人才可得也”，「黃生傳」，『寄軒遺稿』，卷之四。

84) “又別設一府，名曰治事廳，使大臣掌之搜訪，格外人士，才學出類者，聚於府中，養以厚祿，日夜講習兵事，至有一藝一能，有所可用者，亦皆抄選，生聚教訓，各極其方，如是十年，則庶可兵精用足，而人才可得也”，「黃生傳」，『寄軒遺稿』，卷之四。

다. 사회가 불안정하다면 대군을 북방으로 진격시켰을 때 오히려 본국이 위협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요동 공략 전략을 진두지휘하고 실행에 옮길 인재의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기의 북벌론이 북학파와 다른 점은 적극적인 명 황실의 복권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 있다. 북벌을 통해 명 황실을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존재했던 제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복원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화이론 보다 더욱 보수화된 시각을 읽을 수가 있다. 전통적인 대청복수론과 대명리론이 북벌을 통한 청에 대한 복수를 명나라를 대신하여 조선이 거행한다는 명분론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김기는 화이론적 질서의 원형은 이미 변화한 동북아 질서 속에서 다시금 재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의 회복을 위해 조선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 이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화이론적 질서의 회복의 전후로 진보주의적인 사상이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김기의 주장에 따르자면 화이론적 천하질서의 복원을 위한 북벌의 성공 요건은 조선의 현실서, 즉 전통적인 사회체계의 개혁이다. 즉 북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층의 재편과 전통질서의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기의 화이론적 세계관 속에서 명나라 제국주의의 회복은 조선 민족사의 원류인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이 웅거했던 북방 고토의 회복과 부국강병론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천하의 주인이 된 명나라로부터 요동과 영고탑을 얻은 후에 조선 땅과 아울러 삼국을 통치해야 하는 동시에 국토 확장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⁸⁵⁾으로,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북방 고토인 요동과 영고탑에 대한 회복 의식이 간접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방 고토 회복과 국토확장, 부국강병은 수도를 고구려의 서울이었던 평양으로 옮겨야 한다고 할 정도로 김기의 국가발전 전략은 진보적이다. 명나라와 조선 사

이의 전통적인 제후 관계의 회복이 요동, 만주, 간도 등 민족 고유의 북토(北土) 회복과 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개혁과 국부론이 진보주의라면 북방 고토의 회복은 민족주의에 해당한다. 당연히 전자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후자는 명나라 제국주의와 반대 극편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특이하게도 김기의 이념 지표 속에서는 이들 정반대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점은 한 사상가의 이념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분법적으로 양분된 두 좌표의 극점 사이에서 한 개체의 세계관은 자유스럽게 오가는 것이며, 그 스펙트럼의 간극은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다. 한 인간의 가치관을 좌(左)나 우(右)하여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는 좌향우측(左向右側)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우향좌측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사이의 무수한 좌표도 존재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기의 북벌론은 전통적인 화이론과 개혁적인 국보론이 결합된 새로운 조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기의 북벌론은 명분론적인 화이론의 실리적인 변화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국방·군사론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기의 화이론은 정치적인 명분론을 벗어나 본격적인 국방·군사론으로 확대되어 있다. 단순히 존주주의적 세계관의 복권이 아니라 고조선 이래의 북방고토 회복을 위한 축차적인 점령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나라를 중원에 두고, 화이론적 천하질서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선이 요동, 간도, 만주, 심양, 영고탑 등의 북방고토를 점유함으로써 명나라를 제외한 최고의 강국을 이룩하자는 제안이다. 분명히 대명사대주의나 소중화주의의 계승 및 부활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면 이러한 지적은 온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점은 대명사대주의와 소중화주의의 복원이 명분론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하여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김기는 정치적인 명분보다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군제의 개혁과 병

85) “皇帝必以遼東靈固塔，屬之於我(中略)我國既得此兩地，則當移都築城，統理三國，而國力稍裕”，『黃生傳』，『寄軒遺稿』，卷之四。

기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화이론적 세계관의 재현과 조선의 소중화주의 성립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과 전술의 개발을 통한 부국강병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기의 화이론적 천하질서 재구축론은 17세기의 북벌론을 군사적인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진보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 일견 부조화 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조합은 화이론적 세계관과 실용적인 기술개발의 진보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맺 음 말

본고는 「황생전」에 나타난 북벌론의 양상과 특징을 적극적인 요동 점령론과 축차적·토착적인 점령론, 청나라 지형에 맞는 진법 운용과 첨단무기 개발, 전통적인 화이론과 진보적인 부국강병론의 발전적 결합이란 세 국면을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황생전」에 제시된 북벌론이 18세기 지식 이론과 이념지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검토해 보았다.

(1) 김기는 북쪽을 청나라 오랑캐로부터 방어한다는 북수(北守)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양·요동 점령 및 북방 고토회복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기의 요동 공략론은 심양-영고탑-산동성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축차적인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김기의 요동공략 및 축차적인 점령론은 단기적인 북벌이 아닌 장기적인 토착화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김기는 토착화와 현지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현지의 풍토와 지리, 만주족의 습성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맞춤 전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김기의 축차적인 점령론과

토착적인 현지화론은 북방 안보의 유지라는 현상 유지론으로 그치지 않고, 조선의 사회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륙공략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론의 성향을 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김기는 요동 진출과 축차적인 점령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핵심은 바로 청나라의 주력 부대인 기병(騎兵)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 최첨단 무기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진법의 운용이다. 김기의 진법은 기병으로 사용할 말이 부족한 조선 군대의 실정과 청나라 철기병의 위력, 요동 및 중원의 지리적인 특성을 두루 고려한 실질적인 전술이다. 김기는 국내외, 고금을 막론한 병서와 군사서를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무기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화포와 화기, 각종 공성장비 등을 동원한 전술을 설명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의 첨단 무기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대목도 북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장비의 혁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무장거를 중심으로 첨단 군장비를 활용한 진법은 첨단기술전을 주장하는 이러한 김기의 북벌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3) 김기의 북벌론은 명나라 잔존세력과 연합하여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를 구축하고, 조선은 그 소중화로 위치해야 한다는 화이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화이론적 질서의 회복의 전후로 진보주의적인 사상이 짜여져 있다는 점이다.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화이론적 세계관의 재현과 조선의 소중화주의 성립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기술과 전술의 개발을 통한 부국강병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기의 화이론적 천하질서 재구축론은 17세기의 북벌론을 군사적인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해 진보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 일견 부조화 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조항은 화이론적 세계관과 실용적인 기술개발의 진보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7. 3. 19,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황생전, 북벌론, 진보적인 부국강병론, 18세기 국방담론, 김기

<ABSTRACT>

A Study on *Kim-gie's* Argument about the Expedition of the North in *Hwang-saeng-jeon* (黃生傳)

Kwon, Do-kyung

This paper is the study on *Kim-gie's* argument about the expedition of the north in *Hwang-saeng-jeon*(黃生傳). This study inquired into *Kim-gie's* argument to conquer the north as two conditions.

The first is the aspe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gument to conquer the North in *Hwang-saeng-jeon*(黃生傳) as two conditions. The second is the meanings and significances that argument to conquer the North in *Hwang-saeng-jeon*(黃生傳) occupies in the 18th discussion about the national defense.

Key Words : *Hwang-saeng-jeon*(黃生傳), Argument about the Expedition of the North, the Measure to Enrich and Strengthen a Country, the 18th Discussion About the National Defense, *Kim-gie*